

한국전지산업협회 감사결과

< 국감 및 언론보도 관련 >

- ① 직장내 괴롭힘(부하직원 폭행/성추행) 사건('18.2월)은폐
 - 사건발생 후 가해자인 본부장선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상급자(부회장) 보고가 없었고 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취한 바 없음 ⇒ **개인 및 기관경고**
- ② 가해자에 대한 징계없이 사직서 수리의혹
 - 관련 규정(협회규정, 민법) 및 판례 검토시 본부장(임원)의 사표로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협회의 사표 수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- ③ 가해자에 대한 고액 퇴직금 지급 의혹 및 연구위원 재임용 시도
 - 「근로기준법」, 「급여 및 퇴직금 규정」에 따라 257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절차상 하자 없으며, 재임용관련 검토는 하였으나 미추진
- ④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치사항
 - 연장 근로수당 일부 미지급, 임신 중인 근로자 시간외 근로 등 5가지 노동 관계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 시정요구에 대해 **협회 조치 완료**
- ⑤ 무리한 분원 설립에 따른 부채 증가 등 부실 경영
 - 협회의 부채는 ('18)1.6억원→('22)11.9억원으로 10.3억 증가하였고 광주분원 토지매입대금(7.6억원)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
 - 분원의 제주, 호남 지역 편중 논란은 있으나 정부과제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음
- ⑥ 계약업무 관련 비리 의혹 등
 -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(전체계약의 91%) 및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확인(총 105건 계약이 9개의 특정업체에 편중) ⇒ **기관주의, 제도개선, 통보**
 - * 특정업체 다수 수의계약에 관하여 자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중

< 현지 감사시 적발 사항 >

⑦ 자격미달 신규직원 채용

- '22년 2월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상 학력기준(대졸이상)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서류검토 없이 채용 ⇒ **시정(관련자 면직) 및 기관경고**

⑧ 법인카드 사용지침 부재

- 예산 증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증가하고 있으나, 회계규정 등에 법인카드 지침이 없어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정 필요 ⇒ **기관경고 및 제도개선**
- * 카드사용 : (18) 3.6억 →(19) 2.6억→(20) 2.6억→(21) 3.3억(22) 4.9억

⑨ 퇴직연금 기준책임준비금 법정적립비율 준수

- '21년도말 퇴직연금 적립비율은 76.4%로 법정적립비율(90%) 보다 13.6% (103백만원)부족하게 적립하여 부족액 해소하고 법정적립비율 준수 ⇒ **통보**

⑩ 기반조성본부장 비위 사항

① 지분투자 및 감사방해

-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*에 내부보고 없이 투자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로 기강 문란 및公私 무분별

* A사(1,250만원), B사(8,400만원), C사(2,000만원) 투자

- 산업부 감사 중 지분투자하고 있음에도 종결하였다고 거짓 진술, 가짜 영수증 제출, 은행거래내역 3~4건 삭제 후 제출

② 출처 불분명한 현금 거래 확인

- 본부장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입금거래 31건 총 1억3,485만원을 댕가(이자 등) 및 차용증 없이 골프장 등에서 선물박스로 빌렸다고 진술
- 계좌이체가 아닌 고액의 현금을 받아 CD기에 나누어 입금한 점, 입금일의 상당수가 출장일 입금 된 정황으로 보아 부정한 자금일 가능성 높음

⇒ **증징계 및 수사의뢰요구**

*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명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음